

# Hot Issue & Cool Vision

2004/06/15

## GPR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후건 (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

### 차례

---

1. 서문
2. GPR의 배경
3. GPR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내용 문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28-27 동원빌딩 5층(우110-759)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전화 (02)739-0611 / 팩스 (02)739-0616 / e-mail kifs@kifs.org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연구원**

# GPR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후건 (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

## 1. 서문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및 재배치 (GPR)가 한국사회에 많은 파장을 주고 있다. 주한 미군 6천명은 이미 이라크로 재배치되었으며 미국 측은 연내 추가로 주한 미군의 일부 (약1만2500명) 철수계획을 한국 측에 통보하였다. GPR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미국은 휴전선에 배치되었던 주한미군2사단과 8군이 주둔하고 있는 용산 기지를 2007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기지 이전을 추진 중이다. GPR과 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안보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펴면서 미국이 GPR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반미 감정과 자주국방과 같은 당돌한(?) 주장을 감히(?) 한 현 정부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 전 UN 대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 전 대사는 8일 저녁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협회 주최의 행사 ‘한미우호의 밤’에서 축하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서자마자 “고 레이건 대통령의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빌자”고 말하고, 연설 마지막 대목에는 “한미동맹 만세! 주한미군 만세!”를 외쳤다. 박 전 대사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한미우호를 다지기 위해 모였다”며 “미국이 영영 한국에서 떠나는 날에는 한국전쟁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이 그의 핵무기를 평양 시내에 완전히 투입하고 우리에게 쌀 300만섬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북한은 인천 김해 부산항에 무조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대북 경각심을 촉구하였으며 “50년 전 한국에는 피난만이 가득 했었다”며 “한미우호를 빼면 이 동맹은 계속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우리의 어린 민주주의가 미국 독수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미소로 참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사와 같이 GPR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미군의 철수와 재배치를 반미감정으로 보는 것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연 미국은 일부 배은망덕(?)한 한국 젊은이들의 반미에 식상해서 철수 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미군의 GPR에 배경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주한미군의 기지이동과 철수 및 재배치가 왜 지금 시기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GPR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다.

## 2. GPR의 배경

필자는 2001년 4월 미래전략연구원에 지정 논단을 쓰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른 재배치 및 철

수에 관해서 논한 적이 있다.<sup>1)</sup> 당시 필자가 이러한 글을 쓰면서 참고로 하였던 것은 Washington Quarterly 2000년 가을호에 발표된 커트 캠벨의 논문과 미국 랜드연구소(RAND)의 국방장관 출신 프랭크 칼루치의 지휘 아래 안보 및 군사문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 “정권 교체 2001” 그리고 전 뉴욕 타임스 군사안보 전문기자인 리처드 할로가 써서 New York 대학 (NYU)의 인터넷에 올린 논문이다.<sup>2)</sup> 이 논문들의 주요요지는 미국의 대동아 정책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일본에 대해 ‘부담 분담’(burden sharing)만을 요구해온 입장을 폐기하고 ‘권한 분담’(power sharing)까지 확대하며, 일본 내 군국주의적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10만명 가량의 지상군 위주의 주한, 주일 미군에서 미사일과 요격기 중심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NMD, TMD)체제”로 선회하여야 하며 이러한 체제 속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철수 계획은 2002년 5월 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라는 비공개 문서에 서명하면서 공식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방계획지침’에 담겨져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 그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지상군 위주의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려는 국가나 테러집단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공격전략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으로 하는 것과<sup>3)</sup> 해외주둔 미군을 기술발전에 맞게 Lean, Flexible, Potent (LFP) 하게 하여 지상군 위주에서 미사일과 요격기 중심으로 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위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 및 재배치는 미국의 국방계획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결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반미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 3. GPR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안보·경제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GPR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들에 우려하는 안보위기관 주한미군의 일부가 철수 하고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된다면 이것은 안보의 공백을 가져 올 수 있거나 혹은 북의 오판을 유도해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1) 박후건 2001년 4월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미국을 제대로 읽어야“

2) 할로의 논문은 '워싱턴의 군 수뇌부 외에 미군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령부 내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지상군 병력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상군이 이전할 후보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즉 주한미군 제2 보병사단 약 2만7천명은 알래스카·괌·하와이나 미국 서해안 지역으로 철수가 검토되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 원정군(III MEF) 약 1만8천명의 이전 후보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또는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오키나와 북부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 제2사단에서 5천명이 이라크로 재배치되었고 추가로 1만2천5백을 일본에 재배 계획을 세우고 있어 미국은 이미 적어도 3년 전에 구체적인 GPR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고 있다.

3) 『뉴욕 타임스』 2002년 6월 17일자 보도

이 높아져 한국에서의 외국투자 (foreign investment)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더 외국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데 현재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0%를 넘어섰고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4년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경제에서 외국인은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만약 외국자본이 안보위기 때문에 한국에서 빠져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마비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럴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필자는 미국의 경영컨설팅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해외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직접 컨설팅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외국자본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는 지 또 그 결정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자.

먼저 외국자본이 한 나라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어느 곳이 가장 좋을 지에 대해서 search screen이라는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조사가 다 이루어진 후 투자 매력도 (investment attractiveness)에 의해 categorization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투자 적합한 곳은 primary target으로 그 다음으로 secondary, alternative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그 다음으로 primary target의 category에 들어 있는 대상국들의 preliminary study가 이루어진다. 이 preliminary study에서는 각 나라의 시장 potential (가능성), barrier (장애), legal regulation (법규제), security (안보)등이 분석된다. 한국 같은 경우 분단국이고 아직 정전이 되지 않은 휴전상태인 점도 심각히 고려된다. preliminary study를 통해 다시 등급이 매겨지고 이제 투자매력도 (investment attractiveness)가 아닌 투자 후보국 (investment candidate)으로 선정된 나라는 preliminary study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in-death analysis라고 불리 운다) 이 작업은 많은 경우 외부 경영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외국투자회사의 담당부서 회의를 거치고 때로는 CEO 결정으로 또는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난다.

이러한 투자결정 과정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례적으로 (routine)하게 하는 것으로 만약 이 과정 속에서 시장 가능성이 낮거나 법규제가 너무 심하거나 또는 안보상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유동성이 심한 증권시장 (stock market) 이외에 생산(production)과 금융(financial&banking)같은 자산에 투자된 자본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투자가 입장에서 모든 위험요소 (risk factor)를 감안하고 투자 (investment) 보다 돌아오는 이윤 (return)이 많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현재 주식시장 (stock market) 이외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안보위기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그보다 이윤이 더 많이 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가 된 것이다. 외국의 투자들은 한국의 안보·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듯 자신들의 소중한 자본을 함부로 전쟁 위험이 농후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철두철미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예상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 (risk factors)를 감안하고 자신들의 투자가 더 높은 이윤 (return)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고려할 때 안보문제 즉 북한의 위협을 예상 하는데 북한의 지금까지 한 행위와 앞으로의 상황들을 게임이론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분석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북한이 만약 미군철수와 같은 변화로 안보의 공백이 있을 때 한국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

나기 보다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인계지뢰선(tripwire)<sup>4)</sup>이라고 불리우는 미군과 또한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조그마한 실수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 4. 결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GPR)는 미국의 철저한 이해와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는 미국의 사회주의 저지 (containment)정책이 50년 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큰 수혜자로 부각된 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y complex)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보잉, 록히드, 레이시언, 티알더블유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군산복합체는 근 50년 간 매년 엄청난 부가가치 (value add)를 올리며 성장해 왔다. 남과 북으로 갈린 한반도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이들 군산복합체로서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단지 수혜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들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공화당에 58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1997년과 1998년 이태 동안에 로비스트들에게 지불한 돈은 3,4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로서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상군 위주에서 하나에도 수십억불하는 패이트리엇 미사일과 이즈스함으로 대변되는 MD체제가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현재 이라크재건사업에서 가장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할리버턴 (Halliburton)<sup>5)</sup>같은 기업에서 볼 수 있듯이 현 부시 행정부는 군산복합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9·11이후 이른바 ‘예방전쟁’ 개념에 기초를 두고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테러 집단이나 깡패 국가에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론’과 “어느 국가가 미국과 대등해지려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킨다”는 ‘수위전략’을 두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MD 체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6)</sup> 민주당의 케리 후보 역시 MD 체제에 다소 비판적이지만 조건부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다.

GPR,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으로 기지 이전 그리고 미국의 MD 체제구축은 한국의 안보·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역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미국으로부터 올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만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GPR이나 MD체제를 구축한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테러방지과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석유’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이 많은 희생<sup>7)</sup>과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포함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MD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는 군사적 헤게모니를 통한 미국의 초강대국 위치 구축 및 유지와 경제적으로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약 15,000여명의 미군 (주한미군의 절반가량)이 휴전선을 마주한 문산과 철원지역에 전진 배치되어있다. 이것은 북한이 만약 남한을 공격 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미국과도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줌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기 하기 위해서다 (Harrison, 2002)

5) Halliburton은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딕 체니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이다.

6)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오는 2025년까지 560억-68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26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이 최우선적인 국가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사업을 위하여 8억1천4백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배정하였다.

7)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희생은 최소한 10만명이상 될 것이다 (Harrison 2002).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GPR로 인해 더 커지지 않는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 (risk factor)이라고 생각하는 인계지뢰선 (tripwire)인 휴전선 인근인 철원과 문산에 배치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위험요소가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국민이 미국의 GPR 때문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느끼고 두려워한다면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미국의 GPR로 인한 안보불안이 일부 언론과 안보·경제 전문가들로 제한되기를 바란다.

<2004년 06월 15일 미래전략연구원>